산 베고 누운 구름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종찬,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겠다!"

-독립운동에 전 재산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 23대 광복회장 취임!
-광복회의 학술원 창설, 임정수립 1919년 기산한 ' 대한민국 105년' 연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제23대 광복회장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취임했다.
광복회는 이날부터 모든 공식 문서에 서기 대신에 '대한민국 연호'를 표기하기로 했다.
연호는 일제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사용했다.
독립 선언과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이 원년이다.
환산하면 올해는 '대한민국 105년'이 되는 셈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확립하는 과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비화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그가 광복회장에 당선한 직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 정체성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는 글귀가 마음에 박혔다.
아들 철우와 죽마고우인 윤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보고 아꼈다고 한다.
좌우로 두 동강 나듯 갈라진 나라, 극한의 대결과 분열,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가 정체성만 바로 선다면...이 길로 나간다면 통합도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58년 전 탄생한 광복회의 역사는 순탄치 만은 않았다.
"나라 최고 원로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후손들의 빈곤과 무직, 교육기회의 상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조차 못했습니다."
이종찬은 "권위와 존경을 누리면서도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자성부터 했다.
"광복회의 미래에 대한 대비에도 부족했다"고 통탄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희망의 싹을 발견했습니다. 지부장 중 한 사람이 '선거에서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저를 다시 임명해 주신 회장님의 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복회가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광복회를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모으고 단결하면..."
연설 도중 가장 뜨거운 박수가 나온 순간이다.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일한다면 그분이 내 편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민하고, 정의의 편에 선다면 그분이 내 편입니다."
목청을 높여 이 말을 할 때도 박수가 쏟아졌다.
"독립정신으로 무장된 세대가 국가의 중추적 인적 자산으로 등장하도록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내 여러 곳에 분산된 독립운동 사료들을 모아 '광복회 학술원'을 창립할 계획도 밝혔다.
취임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6개 보훈단체장, 광복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1867~1932)의 손자, 4선의원으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을 역임했다.
학술원을 만든다는 구상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얼른 보면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나 배움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우리는 안다.
지식이야말로 '검증된 믿음(justified true belief)'이라고 할 것이다.
지구가 평평한 건 '감각'일 뿐이다.
배운 대로 둥글다는 건 '인식'이다.
지적으로 무장해야 지구가 둥근 걸 알 수 있다.
소크라테는 용기를 '지적 인내'라고 여겼다.
광복회에 학술원 설치하려는 이종찬의 구상이 내게 소중하게 들린 까닭이기도 하다.
박민식 장관, 김형오 문희상 전 의장,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박유철 전 광복회장, 김기현 국힘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민식은 "이종찬 회장님이야말로 좌우 이념을 떠나 독립운동으로 하나가 되었던 정신을 되살려 광복회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국민 통합에도 앞장서실 최고의 적임자라고 믿습니다"라고 상찬했다.
이은 헌정회장 정대철의 연설이 압권이었다.
"아들 친구인 윤 대통령에게 대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신 바 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건, 이종찬 회장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
그는 이종찬을 '존경하고 좋아하는(respect and like)' 이유 5가지를 들겠다고 했다.
정대철이 연설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준비를 단디한듯 짜임새와 재치가 넘쳤다.
먼저 DJ 대통령 만들기부터, 둘째 노벨평화상 수상에 기여, 셋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을 비롯한 힘 없는 약자들과 함께 잘 살아갈 사회 만들기를 꼽았다.
뿐만아니라 미담의 한 가운데 서있다고...
"1977년 김지하 시인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비판받을 때 뒷구멍으로 도망가라고 일러주고, 조영래 동지를 위해 1980년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 그를 사법연수원에 복교시켜 달라..."
그런 숨겨진 미담의 당사자라서 존경하고 좋아한단다.
네번째 존경과 사랑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최고의 독립운동가문으로 우당 이회영과 성제 이시영을 비롯한 6형제가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털어놓은 적공을 칭송했다.
"요즘 계산하면 600억 대, 어떤 사람은 1000억, 2000억 대라고도...그 재산을 팔아 갖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을사5적을 척결하려 하신 우당의 친손자라 존경하고 좋아한다 했다.
다섯가지가 아니라 여섯가지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광복회도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존경하고 좋아한단다.

정대철 회장은 위트가 넘쳤다.
"한 마디만 더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그를 좋아하는 것은 고등학교 선배라서..."
일곱 가지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댔다.
이어 김기현 국힘 대표가 축사를 했다.
모두에 "웃음이 절로 나오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정대철회장 님의 멋진 축사를 듣고..."라고 했다.
이날 사회를 본, 경기고 후배인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 및 진행도 매끄러웠다.
인삿말을 마치고 내려가는 이종찬을 기어코 불러세웠다.
그리고 40년 정치역정의 뒷전에서 수고한 아내 윤장순 여사를 연단에 오르게 했다.
광복회장을 단디 하려면, "윤 여사 내조가 필수"라면서...
이종찬 회장의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에 나도 미력하나마 적극 동참할 생각이다.
이날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윤 대통령의 스승인 송상현 선생도 모습을 보였다.
이회장과 함께 송 선생까지 윤통의 멘토가 두명이나 백범 기념관에 등장한 셈이다.
1년 전쯤, 변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 이인호 대사님과 함께 뵌 게 마지막이었을까?
한번 모시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다.